

# Gorbachev의 權力地位와 그의 改革政策

—소련의 아세아·태평양地域에 대한

새로운 挑戰에 聯關하여—

李 崇 熙

I. 序 言

II. 制度的機構로서 소련共產黨 書記  
長과 集團指導體制

III. 改革政策和 障礙勢力

IV. Gorbachev 體制的 人的構成의 變貌

V. 改革政策속의 對外政策

VI. 아세아·태평양地域에 대한 새로  
운 挑戰

VII. 結 語

## I. 序 言

Michail Gorbachev가 2년전 소련 당서기장의 권좌에 올랐을 때, “개혁”이란 말은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급진적 개혁”의 필연성이 그에 의해서 강조되고, 이제는 이러한 변혁을 “혁명”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1986년 2월의 27차 당대회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개혁이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요즘에 와서는 이것보다 오히려 정치적인 변혁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년전만 하여도 소련이 정말 개혁의 길로 들어설 것이냐에 대해서 서방측 논평들은 대개 비관적이었으나, 이제는 Gorbachev가 오히려 그의 개혁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로 그들의 관심이 기울어졌다.

Gorbachev는 그의 개혁정책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권력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는가? 소련내의 반발세력은 어느 정도 크며 또한 강력한가?

Gorbachev는 어디까지 나아갈 것이며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허용받고 있는가? 그도 Khrushchev와 같은 운명에 처할것이 아니냐? 그는 제 2의 Stalin이나 혹은 제 2의 Dubček이나? Gorbachev 개혁정책의 성공을 서방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등의 수많은 의문점들이 던져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물음과 연관하여 본고에서는 Gorbachev가 처해있는 권력층집단부의 권력상황을 분석해 보고, 그의 등장이 갖는 소련사회의 시대적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로 얽매어 있는 제도상의 제한과 집단지도체제의 양상을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개혁의 반대 내지 장애세력의 범위 및 현황을 관찰하고, 특히 전통적인 보수그룹으로서 군의 위치에 주목한다. 또한 권력의 교체시기에 보여지는 소련의 특수성으로서, 소련의 개혁정책이 Gorbachev의 권력안정 여건과 함께 어떻게 소련의 대외정책에 연관되어 있는가를 밝히고, 이와 연관하여 아세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소련의 도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자 한다.

## Ⅱ. 制度的 機構로서 소련共產黨 書記長과 集團指導體制

일당 전제하에서의 소련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치권력의 힘은 소수 지배층에 집중되어 있다. 국가의 핵심 실체로서 소련 공산당은 정치권력의 지주이며, 이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로 인하여 당 정치국에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이 주어졌고, 이를 집행하는 부서인 당 서기국의 수위를 겸하는 서기장에게 지도적 지위가 맡겨진다. 이데올로기적으로 고정화된 국가기구에 대한 당기구의 우월로 인하여 소련공산당의 서기장 혹은 제일서기에게는 그의 직위에서 오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영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점진적으로 실제적 지배권을 행사할 전망이 주어진다. 이러한 권력지위는 특히 개인 숭배 사상이 팽배했던 스탈린 시절에는 “집주인 (Khozyain)” 또는 “수령 (Vozhd)”로 불리어 일인지배의 절정을 이루었고, Khrushchev

도 “지도자(Rukovoditel)”등으로 불리었다.

Brezhnev는 정치국 정위원으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는데 비교적 오랜기간이 걸렸는데, 이 지위는 그가 소련 원수의 계급을 갖는 군사위원회의 의장직과 최고 소비엘의 상임위원회 의장의 직을 겸임하는 1977년 이후 더욱 확고히 되었다. 그러나 말년에 와서 그의 고령 나이와 허약한 건강상태로 그가 이룩했던 권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의적 일당 국가의 계층적 구조속에 놓여있는 일인지배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웠고, 곧 강한 집단지도체제에 묶이게 되었다.

소련 공산주의적 일당 국가의 약점은 특히 새로운 총서기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이는 일부 최고 지도자의 경질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연유한다. 실제로 새로운 총서기 선출권한은 정치국에 주어지고, 이의 결정을 중앙위원회에서 형식적으로 인준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서기가 민주적인 선거방법으로 정부의 수뇌를 교체하는 서구에서와 달리, 이제까지의 지도부를 인계받아야 하며 그러므로 우선 기존의 정치국 위원들과의 협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치국은 어떤면에서는 여기에 대표하는 지배체도와 기구의 대변자들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의 인적구성의 변화는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도부의 형성은 그 지도자가 여러가지 이유로 그의 권력 기반이 빈약할 때 더 어려움이 크다.

지난 5~6년동안 당서기장들의 허약한 건강의 이유로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국의 체제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었고, 이러한 경우 정치국의 의사결정은 집단지도체제(collective system)에 크게 얽매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Brezhnev 말기 즉 1981년 2월의 26차 당대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중심체로서 정치국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고 있는 데에서도 볼 수 있다. Andropov 하에서도 이러한 집단 지도적 역할은 밖으로 표명되었고, 이전에는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만을 보도하던 소련의 언론들이 정치국 회의의 진행과정을 정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은 Cher-

nenko 집권시에도 계속되었는데, 사실 그는 그의 성격으로 봐서 Andropov 보다 집단지도체제에 더욱 어울리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정치국의 집단지도 체제적 성격은 2년반동안에 걸친 세번의 지도자 경질로 인하여 크게 강화되었다.<sup>1)</sup>

Gorbachev의 등장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그도 Khrushchev와 같은 전임자의 신화를 일거에 부수어 버리는 혁명적인 행동의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한 그 자신의 권력지위를 굳히기 위해 필요한 일정기간 동안 어쩔수 없이 “집단지도체제”에 얽매어 있다.<sup>2)</sup> 27차 당대회에서 인준 통과된 당 강령에서도 집단지도체제를 중시한 것은 그간의 소련지도층의 세력판도를 말하여주고 있다.

당 총서기로서 Gorbachev가 당서기계층의 최고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그가 모든 당 기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고 집단지도 체제에 묶여있으며, 그러므로 그의 실질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어느정도 정부기구의 테크노크라트 계층의 동맹자들에게 의존하는 면이 있음을 보겠다.

### Ⅲ. 改革政策과 障礙勢力

소련체제는 당을 구성하고 있는 Elite들, 즉 Nomenklatura<sup>3)</sup>(1500만정도)에 의해서 이끌어지며, 모든 여하한 사회적인 연판과 관계없이 그들 자신의 수중에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이러한 권력집착의 목적은 정당성이나, 사회정의 보다 중요하며, 경제적으로 업적성, 자본형성 능력, 경제적 합리성등은 무시되고 있다. 개혁정책은 특히 에너지의 낭비, 자본낭비, 행정관료의 무능과 정체된 관료주의에서 요구되고 있다.

1) *Pravda*, 24 Sept. 1984과 NZZ 6, Okt, 1984 참조

2) Boris Meissner, “Die SU vor dem 7. parteikongreß der KPdSU”, in EA, Folge 3/1986, S. 67 참조.

3) M.S. Voslensky, *Nomenklatura,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p. 36~44 참조.

철강산업에서는 잘못된 투자 순위에 대해서 논란이 크며,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고가의 수입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며 약 100개에 해당하는 행정부서는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점점 적어져 가는 업적량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능률 및 경제침체를 만회하는 데는 두 가지 개선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한가지는 이제까지 역대 경제책임자에 의해 시행되어 왔던 강경노선정책으로 기존 구조내에서의 엄격한 규율, 강화된 중앙통제, 증가된 당의 감시강화와 업적 달성 미달자에 대한 무차별 불이익 대우등이 고려되어왔었다. 이러한 재래의 해결책에 비하여, Gorbachev는 오히려 중앙통제를 완화하고 당의 간섭을 줄이며, 좀더 독립운영의 모를 살리고, 시장기구의 이용 및 재정적인 자극을 줌으로서 이에 대처하고자 한다.<sup>4)</sup>

Gorbachev의 개혁정책은 합리성, 실용성, 현실적인 계획, 능력있는 행정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작업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은 주로 경제적인 발전을 주안점으로 하지만 Gorbachev 자신도 인식하고 있듯이 이 정책의 실현은 “사회적인 의식(social consciousness)”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 하며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는 소련 공산당이 70년동안 기반을 닦아온 소련사회의 체제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sup>5)</sup>

그런 의미에서 체제변혁이 가져오는 즉 이제까지의 지배체제의 향유자인 Nomenklatura의 이해에 대한 저축의 한계는 앞으로 얼마만큼이나 Gorbachev가 그의 개혁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인가. 혹은 주도해 나가도록 허용될 것인가를 크게 좌우할 것이다.

경직된 체제에 대한 완화정책은 지난 1월말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행한 그의 “재조직과 당인사에 대한” 보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이제까지의 위로부터의 통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밑으로부터의 통제

4) S. Schmemmann, IHT, Mar. 13, 1985.

5) *Pravda*, 22 Jun. 1986과 F.W. Christians의 *Der Spiegel*과의 인터뷰 *Der Spiegel*, Nr. 9/1987(23, Feb. 1987) 참조.

의 수준과 능률을 높임으로서, 각 집행부와 각 관료들이 항상 선거권자, 집단작업, 공공조직, 당과 일반 인민전체에 대하여 책임과 의존을 느껴야 할 때이다"라고 밑으로부터의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sup>6)</sup> 여기에서 그는 또한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통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를 제외한 각 지방 및 주의 당서기의 선출에 비밀 투표와 복수입후보제 도입을 시사하고 있다.

“사회 의식” 및 “정치문화”의 변화를 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을 의치고 있지만, 그가 얘기하는 개혁정치에 있어서 “인간요소(human factor)”가 무엇인지는 확실하게 찾아보기 어렵다.<sup>7)</sup> “당내 민주주의”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종래의 “민주집정제”의 강화를<sup>8)</sup> 내세우는 등의 모순은 1월말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번이나 연기되었었다는 그간의 소련내의 사정을 말하여 준다. 개혁정치에 대한 반발은 특히 Gorbachev의 보고와 중앙위원회의 결의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갖고 있음에서도 이러한 면을 엿볼 수 있다(즉 복수입후보제, 비당원입후보권한, 비밀투표제등)에서 그의 거듭주장되는 Glasnost(공개성, 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에서 있었던 34명의 토론 내용은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반대파를 소련 언론인들에 따르면, “자체발생 소련 사회주의적 보수주의”라고 일컫고 있다.<sup>9)</sup> 이러한 개혁에 소극적인 혹은 수동적 비협조의 보수세력이 얼마나 위협적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힐 수 없지만, 최근에 와서 Gorbachev는 이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지금단계에서는 거의 모든 서방측 외교관들과 소련관리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러한 반대파의 세력이 어떤 위협적인 것보다 개혁정책추진에 하

6) FBIS, Daily Report, Soviet Union, 28 Jan. 1987. p. R23.

7) *op. cit.* p. R16.

8) *op. cit.* p. R21.

9) Alexander Y. Bovin, “Die Reserve Gedächtnis”, in *Neue Zeit* (5, 87) 참조. Frankfurter Rundschau(FR), 7 März 1987. 에서 인용함.

나의 부담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과 그 구성원들이 반항하더라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떤 견고한 반대운동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금으로서는 당지도부내에서도 Gorbachev의 지위에 도전할 만한 인물의 등장을 예상하기 어려우나, 국내외적인 필연성에서 시작된 Brezhnev 이후의 개혁의 기운은 그들의 의욕과는 달리 실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저항으로, 이러한 저항이 당 및 정부의 중간계층에 머무르지 않고 상부 지도층과 연결될 때, 특히 Brezhnev의 측근에 속했던 Gromyko나 Shcherbitsky와 Gorbachev 추종자 만은 아닌 일군의 정치국 위원들을 볼 때, 1956년과 1967년의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제외시키기도 어렵다.<sup>10)</sup>

Gorbachev도 이제까지 만각한 특권과 권한의(예, Gosplan) 박탈을 두려워하는 각 행정기관 및 당기구의 중간계층은 당지도부와 개혁을 원하는 인민들 사이에 끼어서 변화의 의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이러한 세력이 1956년과 1965년의 개혁정책의 추진을 파괴하였다고 장애 세력을 비난하고 있다.<sup>11)</sup> Gorbachev는 이러한 중간계층의 반항을 직접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그를 원하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확실히 지식층과 젊은층은 우선 얻을 수 있겠으나, 체제 혜택자와 특권자들은 정말 실제 무엇이 변할 것인가 혹은 그의 용감한 의도가 어디에서 벽에 부딪치나 두고 볼 것이다.

소련에는 아직도 우주개발센터와 고도의 군사산업이외의 분야에서는 아주 보수적이고, 미발달된 농경지의 나라이다. 2억 7천 5백만에 달하는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아직도 농촌마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곳에는 소련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들의 편견, 관습과 구태의 사고방식으로 만연

10) Michel Tatu, IHT, Feb. 27, 1987 참조.

11) 1987. 6. 19 소련작가연맹에서 행한 Gorbachev의 연설참조, *La Republica*, Oct. 7 1987.

해 있다. 여기에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으며, 국가는 단지 가부장적인 제공자로서 여겨지고 외부에 대한 의심이 크며, 혼돈과 불안정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생각은 개혁정책에 대해 무관심을 유발하고, 이는 Gorbachev가 인정하였듯이 그의 국민들에게 향한 직접적인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민이 개혁의 진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큰 장벽이 있다.

또 하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벽은 군이다. 소련제국에서 군은 집단권력을 대변한다. 아직도 군에는 Stalin 시절에 고급장교로 교육받은 23명의 원수들과 장군들이 중앙위원회를 장악하고있고, 여기에는 Gorbachev에 의해 축출당한 로케트사단의 사단장들, 합대사령관, 군의 정치 행정관, 장성급 참모들이 엄연히 자리하고 있다. 전중앙위원회 위원수의 7.5%를 차지하는 이 숫자는 Gorbachev 등장 이후에도 거의 불변이다.

Gorbachev의 지난 1월 중앙위원회 연설에서 모든 군사력은 “개혁을 위해서 공헌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의 중앙위원회의 결정은 “국제상황과 미국의 군사적우위의 노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방위능력의 증진과 사기진작” 및 특히 “군인들과 그의 가족을 위한 물질적 혜택의 향상”을 요구하고 나섰다.<sup>12)</sup>

한편으로 이러한 군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무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시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기를 위한 지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데 Gorbachev의 딜렘마가 있다.

NATO의 연구에 의하면 소련 기계산업생산물의 40%와 총 에너지 산출량의 20%가 군에 투입되는데, 이 군은 전 노동감재력의 5%에 해당되고, 특히 경제계에서 긴급히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더욱 군에 대한 국가 재력의 집중은 모든 최상급 과학자들의 75%가 여기에 종사함을 볼 때 Gorbachev의 개혁정치가 어느정도 그의 군축정

12) *Der Spiegel* Nr. 9/1987, 23 Feb. 1987.

책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sup>13)</sup>

Gorbachev의 구상은 군의 중요성을 경감시키고, 군비의 지출을 감축시키는데 있다고 그의 Moskva 학창시절의 친구 Zdeněk Mlynař는 얘기하고 있다. 사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 7월의 Vladivostok 선언에 의한 Afganistan 주둔군의 일부철회 발표는 이제까지 과소평가되고 있는 Kreml 새지도자의 강력한 군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통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소련 구체제의 신봉자들 중에 군 장성들은 Gorbachev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반대집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들은 실상 모든 형태의 군축과 철군(아프가니스탄에서 이든, 동맹국에서 이든)을 반대하고 있다. 이미 군은 공개적으로 핵무기 실험에 대한 소련의 일방적인 Moratorium에 반대했으며, 청년층에 퍼져가는 평화주의(Pacifism)을 매도하고 있고, Glasnost 대신 “애국적인 교육”을 부르짖고 있다. 그들은 또한 지난 레이카빅에 제시되었던 과감한 소련의 군축제안을 미국의 SDI포기에 조건을 내걸어, 레이카빅이 쉽게 거절할 수 있게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Afganistan에서의 철수 결정은 오히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지도부의 개입을 어느 정도 방어함으로써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공개된 바 있는 1985년 9월의 제네바 군축회담 참가자와 Kreml 지도자간의 회의참가 명단에서 실제로 이 분야의 전문적 군인의 참가가 없었음을 보겠다. 즉 이 회의 참가자를 보면, Gorbachev 당서기장, Sokolov 국방장관, Gromyko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의장, Shevardnadze 외무장관, Chebrikov KGB 위원장이었다. 1984년 12월 전 국방장관이며 정치국 국원이었던, Dmitri F. Ustinov 사후, 정치국의 민간지도부는 정치국내에 투표권을 가진 정위원으로서 국방장관의 참여를 거절하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초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군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군 고

13) *op. cit.*

위층의 민간정치가들과의 상호협조관계는 자주 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인으로서는 Nikolai F. Chervov 중장(Colonel General)과 참모총장인 S.F. Akhromeyev 를 들 수 있다.<sup>14)</sup> 그들은 자주 군축협상회담에 관한 기자회견이나 새로운 제안을 설명하는 회의에서 민간전문가들의 둘러리 혹은 답변자로서 민간인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는 군과 민간인간의 마찰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Gorbachev 의 노력이며 군에 대한 Gorbachev 의 실질적인 장악에 대한 과시이기도 하다.

#### V. Gorbachev 體制의 人的構成의 變貌

이와 같은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Gorbachev 개혁정치가 유지될 수 있는 여지는 그가 발탁된 과정과 20세기 후반에 처한 소련의 상황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 Gorbachev 가 총서기의 지위에 오름으로서 드디어 2년 사이에 3번의 지도자교체를 가져온 노인지배의 혼돈시대에 종말을 가져왔다. 경직화된 체제속에서 그 스스로 체제의 약점을 극복하기 어려운 지경에서 결국 세대교체가 일어난 것이었다.

Michail Sergeyevich Gorbachev 는 당시 54세로서 전임자인 Chernenko 의 사망발표 네시간만에 당 총서기직을 떠맡게 되었다. 이는 13개월전 Chernenko 총서기 결정이 나홀이 결린 것과는 크게 대조적이다. 이 새로운 Kreml 의 지도자는 54세로 Stalin 이후 이 직위에 오른 최연소자로서, Khrushchev 의 59세 Brezhnev 의 57세 Andropov 의 68세 마지막으로 Cherneuko 의 72세와 비교된다. Gorbachev 는 이제까지 그의 전임자들에게 적용되는 총서기로 선출될 세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가 정치국 정위원이고, 중앙위원회 서기이며, 러시아인 이라는 것이다.

Gorbachev 는 1931년 3월 2일 북부카브카즈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

14) Gary Lee, IHT, July 30, 1986.

났다. 젊은 나이에 콜호스 농장에서 트랙터운전사로 일한바 있으며 그는 그의 후전자 덕분에 1950년부터 1955년까지 모스크바 대학의 법과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그후 그는 농사기술자로서 직업훈련을 받았고, 1952년 모스크바시절에 당에 가입하면서 그의 고향에서 콤포스물 정치운동가로서 정치적인 이력을 쌓았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Stavropol 시 당제일서기와 1970년부터 1978년까지 Stavropol Krai 위원회 당제일서기였다. 1971년 당 중앙위원회 최연소 위원이었으며 1978년 농업담당 중앙위원회 서기국 서기가 되었던, 일년후 정치국 후보위원 그리고 1980년에는 정회원이 되었다. 그는 유능한 당간부로서 최고 당 이론가인 Suslov와 그의 사후 Andropov에 의해서 후견 되었다.

Gorbachev가 권력투쟁에서 소련 Nomenklatura체제가 갖는 줄(백그라운드)의 연결에 능숙하고, Stalin적인 전략적 원숙성과 실행력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가 당내의 주요 지위를 쟁취하면서 당 총서기로 등장하는 때는 자신의 권력의 집적이나 추종자의 결집보다도 그의 정치적인 숙련, 시기적인 적절성과 행운이 따랐기 때문이라 얘기할 수 있겠다. 또한 시기적으로는 Gorbachev의 즉위시에 권력 브로커라고 볼 수 있는 M.A. Suslov, D.F. Ustinov 또한 A.P. Kirilenko 등이 이미 타계한 이후이고 연로해가는 당 및 국가기구 담당자들이 대체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Gorbachev의 당 총서기선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 Gromyko는 1985년 3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를 표현하고 있다. “나의 업무적인 의무에 연유하여 나에게 그는 다른 동지들보다 더 분명하다. 그는(Gorbachev) 나라 밖에서, 국제관계의 장에서 생기는 과정의 본질을 매우 잘 그리고 빨리 파악할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나 스스로 그가 사물의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결론을, 즉 당의 의미에서, 얻는 능력에 대해서 자주 놀랐다. 만약, 이 모임에서

하나의 학문적인 토론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문제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sup>15)</sup>

Gorbachev는 또한 그의 후견인인 Andropov가 이룩해 놓은 인적 구조에 힘입었다. Andropov는 15개월의 그의 재임동안 Gorbachev를 포함하여, Ligachev, Ryzhkov, Vorotnikov와 Chebrikov에 걸치는 일련의 새로운 팀의 핵심을 구성해 놓았다.

총서기인 Gorbachev의 권력기반을 인적 및 지역적인 연관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즉 카브카즈(kavkaz)파와 우랄(Ural)파의 연합세력에 두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새로운 또 하나의 세력을 든다면, 레닌그라드(Leningrad)파를 꼽을 수 있겠다.

여기의 제 3세력에는 Leningrad의 당서기를 역임한바 있고 Ramanov의 자리를 승계한 군사 산업담당 서기인 Zaikov이외에, 현재 Leningrad의 제일서기이며, 정치국 후보위원인 Juri Solovyev와 과학담당 서기인 Vadim Medvedev가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그들이 모두 군사 경제 산업분야 출신들이라는 의미에서 Ryzhkov(우랄파)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세력과 가깝다. 이런 의미에서 Leningrad파는 아직도 개혁정책을 위해서는 포섭되어야 할 대상이다.

Ural 파에는 1985년 4월 정치국 후보위원을 거치지 않고 정위원으로 승진된 Yegor Ligachev(1920년생)와 Nikolay Ryzhkov(1929년생)이 속한다. 여기에는 1985년 7월 서기국 서기가 되었고 1985년 12월에는 Grishin의 후계로 Moskva 시위원회의 제일서기가 된 Boris Yeltsin(1931년생)도 속하는데, 그는 다음번에 정치국 정위원으로 승진이 제일 유력시 되고 있다. 일련의 새로 임명된 군사산업 경제분야의 부수상급의 인물들을 이 그룹에 귀속시킬 수가 있는데, Lev Voronin(1928년생), Juriy Maslyukov(1937년생)과 Ivan Silayev(1930년생)들이다. Voronin와 Maslyukov는 Ryzhkov

15) FAZ, 20, März 1985.

16) 이러한 파벌구분에 대해서는 Boris Meissner, Die SU ver dem 27. Parteitag der KPdSU, EA, Folge 3/1986 참조.

의 Gosplan 시절에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부위원장을 역임한바 있고, Yakov Ryabov(1928년생)은 Chernenko 시절에 부수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산업담당 서기인 Lev Zaikov(1923년생)도 이 그룹에 속한다고 보겠다.

개인적으로 Gorbachev와 더 가까운 Kavkaz 그룹은 본인이외에 Geydar Aliyev(1923년생)가 중심을 이루고 1985년 7월 Georgia 연방의 당서기로부터 외상과 정치국 정위원으로 승진한 Eduard Shevardnadze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Gorbachev에 의해서 발탁된 것으로 보이는 Georgiy Rasumovskiy(1926년생)는 북 Kavkaz의 Krasnodar 지방 당제일서기로부터 중요한 당조직국 즉 중앙위원회에서 당간부의 인사를 맡아보는 부서의 장으로 발탁되었다. Gorbachev의 전임자인 Stavrop의 Krai Committee의 제일서기였던 Vsevolod Murakhovskiy는 1985년 12월 부수상 임명 이후 국가농업과 관계산업을 관장하는 새로 신설된 기구인 "Gosagroprom"의 책임자가 되었다.

Aliyev와 Shevardnadze는 Gorbachev의 동맹자로 보여지고, 원래 Brezhnev 추종자로 알려진 KGB의 우두머리인 Viktor Chebrikov도 지난 1985년 4월 정치국의 정위원으로 들어오는데 Gorbachev의 신세를 지면서 이 부류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비해서 Rasumovskiy와 Murakhovskiy와 중앙위원회 농업분야담당 서기로 임명된 Viktor Nikonov(1929년생)과 최근 지난 1월에 중앙위원회에서 주로 정치국회의의 의사일정을 준비하는 일반 업무담당의 비서로 임명된 Anatoliy Lukyanov는 Gorbachev의 추종자라 일컬을 수 있겠다.<sup>17)</sup> 또한 지난 1월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중앙위원회 선전 및 이데올로기부 담당 서기인 Alexander Jakovlev도 Gorbachev의 측근 추종자이다.

당 검열 위원회 의장인 Michail Solomentsev(1913년생)와 소련연방공화국 중 제일 큰 러시아 연방공화국의 수상인 Vitaliy Vorotnikov(1926년생)

17) *Die Zeit*, 6. Feb. 1987 참조.

는 Andropov 시절에 정치국 정위원으로 등장했는데, 전자는 Ural 그룹에 그리고 후자는 Kavkaz 그룹에 귀속 시킬 수 있겠다.

1985년 10월에 제일 부수상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겸임하면서 10년 이상 누려온 Baybakov의 Gosplan 위원장직을 계승한 Nikolai Talysin (1926년생)은 이 두 그룹의 중간 위치에 있다고 보겠다.

1985년 7월, 10월, 12월에 각각 퇴임한 Ramanov, Tikhonov 와 Grishin 그리고 최근 지난 12월의 Kazakhstan의 Kunayev 퇴거로 정치국 정위원의 수는 11명으로 줄었다.

Gorbachev 이외에 Brezhnev 파를 형성하는 정치국 정위원으로는 유일하게 Ukraina의 제일서기인 Shcherbitsky가 남는다.

#### 정치첨단지도층의 인적계보

(1987년 1월)

	Brezhnev 파	Gorbachev파	Kavkaz 파	Ural 파	Leningrad 파
Member of Politburo	Shcherbitsky Gromyko		Aliyev Shevardnadze Chebrikov Vorotnikov	Ligachev Ryzhkov Solomentsev	Zaikov
Candidate of Politburo	Dolgikh Sokolov Demichev	Yakovlev Slyunkov		Yeltsin Talyzin	Solovyev
Secretary of CC	Simjanin Dolgikh	Lukyanov Yakovlev Dobrynin Nikonov Rasumovsky Biryukova		Ligachev	Zaikov Medvedyev
Council of Ministers	Akhromeyev	Murakhovskiy Vlassov		Voronin Maslyukov Silayev Ryabov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는 Vladimir Dolgikh와 최근 Gromyko의 밑으로 옮겨진 Pyotr Demichev를 제외한 Talysin, Sokolov, Yeltsin, Solov'yev, Slyukov, Yakovlev는 모두 Gorbachev 등장이후 이 지위를 얻었다. 이상의 계보를 도표로 표시하면 위와 같다.

이상과 같은 소련공산당의 정치국과 서기국의 인적구성을 볼 때 Gorbachev의 개혁정책의 추진에 큰 방해세력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문제는 중앙위원회에 아직도 즉 27차 당대회 이후에도 견재하고 있는 일군의 반대 세력이다. Andropov 집권이후, Chernenko 시대에 정체를 면하지 못했지만, 계속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왔고, 당기구 및 정부기구내에서 수많은 인적변화가 있었으나, 세대교체에 관한한 아직 제한적이다.

Numenklatura의 최상급이라 일컬을 수 있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볼 때 27차 공산당 대회 이후에도 눈에 띄는 인적구성의 계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sup>18)</sup> 이는 특히 319명에서 307명으로 축소된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의 구성에서 볼 수 있다.

즉 1981년 26차 당대회 이후 50세이상의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 37.4%인데 비하여, 1986년 2월의 당대회에서는 34.8%로 낮아졌으나 그 폭은 좁고, 5분지 4는 대러시아인이고, 97%가 남자이며, 40%가 관직을 갖고 있다. 당 대변인이었던 Samyatin의 발표에 의하면,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의 경질은 1981년 보다는 높지만 약 40%에 머물고 있다. 인원수가 151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한 후보위원과 75명에서 83명으로 증가한 중앙개정위원회를 통틀어서는 대강 50%의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본다.<sup>19)</sup>

특히 중요 당직 및 정부직에서 퇴거당한 거물급 인물들이 계속 중앙위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Gorbachev의 인사정책에서의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인물로서는 수상을 지낸 Tikhonov, Gosplan 위원장이었던 Baybakov,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물러난 Kusnetsov,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18) Ernst Kux, *Stagnation in der sowjetischen Nomenklatura*, in NZZ, 27 März 1986 참조.

19) W. Adam, FAZ, 8, März 1986.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Ponomaryev, 군참모장이며 제일 국방차관이었던 Orgakov, 합대계 특이던 Gorshikov, 로켓트군 대장이던 Tolubko 등은 그들에 허락된 특권을 누리며 중앙위원회 정회원으로 전재하고 있다. 그러나 아주 사라진 인물도 있는데 Gorbachev의 숙적이었던 Romanov, 오랫동안 모스크바의 당제일서기였던 Grishin, 당서기였던 Russakov가 여기에 속한다.

Gorbachev도 Andropov처럼 그의 지지세력으로서 보다 경찰(KGB, MWD)에 의존하고 있음을 Ustinov 사후 국방장관인 Sergey Sokolov(1912년생)가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무는 반면, KGB 위원장인 Viktor Chebrikov(1923년생)의 정위원 임명에서 엿볼 수 있다. 그의 동맹자로 보이는 Aliyev나 Shevardnadze 등이 KGB 출신이라는 데서도 이에 대한 추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면은 신임 내무장관인 Vlassov가 가까운 Gorbachev의 추종자임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지세력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동용에서 즉 개혁정책의 적극지지자이며 Gorbachev의 경제문제 자문인 Abel Aganbegyan이나 Tamara Zaslavskaya가 중앙위원회에 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sup>20)</sup>

군을 개혁정책의 잠재적인 장애요소로 보는 Gorbachev는 군을 견제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면은 적어도 1961년 당강령에 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면은 적어도 1961년 당강령에 비하여 아주 짧은 1986년 당강령에 왜 자세하게 당과 군과의 관계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데서 엿볼 수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당은 “군의 생활과 활동에 대한 조직화되고 지도적인 영향을 강화하고” 또한 “군과 국민간의 불가분의 연대”를 강조하나, “군과 당의 연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써 당의 군에 대한 강화된 통제를 당 지도부가 시행함을 언급하면서 국방 및 안보정책을

20) B. Meissner, Die Ergebnisse des XXVII. Parteikongresses der KPdSU, in EA, Folge 8/1986 S. 244~245 참조.

견고히 하고 철저히 실행할 뿐 아니라, 방어적 성격의 군사 독트린도 또한 강조하고 있다. 중앙위원회 정회원, 후보회원, 중앙개정위원회 회원의 세 지도 그룹에서 40명을 차지함으로써 군의 비중이 퍼센트면에서 거의 변화가 없으나, 군의 중요직책에 있어서는 Gorbachev의 군 인사정책의 관여를 파악할 수 있다.

40만 이상의 동독주둔의 정예인 적군을 지휘하는 “독일주둔 소련군부대(Gruppe der Sowjetischer Streitkräfte in Deutschland GSSD)”의 사령관 Zaitsev 육군대장은 1985년 7월 교체되었다. 그는 얼마전에 1984년 가을 이후 잠적했던 전 참모장 Orgakov를 동베를린에서 영접한 사실이 동독 언론에 발표된 바 있었다. Zaitsev의 교체는 4년반이나 되는 근무기관이후 당연한 일로 볼수도 있으나, 이러한 퇴거가 모스크바에서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헝가리 주둔 소련사령관 Kochetov도 2년의 재직후 경질되었다. 후임자로 임명된 Pyotr Lushev(1925년생)은 연령이나 경력면에서 전임자인 Zaitsev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즉 Lushev는 Zaitsev와 함께 1954년 전차부대 학교를 졸업했고 Zaitsev와 함께 1976년 대장으로 승진, 1981년에 중앙위원회 회원에 발탁되었고 2년후에 “소련 영웅칭호”를 받았다. 그러나 Lushev가 Zaitsev와 다른 결정적인 점은 그가 공개적으로 소련 적군기관지 “적성(Krasnaya Zvezda)”에 자기의 구상을 밝혔는데, 즉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자원은 무조건 필수적인 것에 엄격히 제한하고, 이로써 국방이 국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다.<sup>21)</sup>

군에 대한 당의 통제기구인 적군내의 정치행정부서에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 즉 Zaitsev의 감시자가 볼 수 있는 30년 이상 동안 이 부서에서 일해온 Lisichev(1927년생)도 동베를린을 떠나서 77세되는 Yepishev 대장의 후계자로서 전 소련군의 정치행정담당자로서 부상하였다. 이 군 주요정치 행정국은 당 중앙위원회의 한 부서로서 군 기구와 병행에

21) *Der Spiegel*, Nr. 32/1986에서 재인용

서 조직되어 있고 공식적으로는 각각 기구의 “정치적 업무를 위한 부사령관”으로 호칭되고 있다. 1926년부터 1985년까지 23년동안 Yepishev는 군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아프가니스탄군의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점검한 소련 제국주의의 장본인이다.

1985년 당시 “Pravda”는 왜 그 사이에 군에 인사이드가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방증하는 기사를 볼 수 있었는데, 즉 이 당 기관지는 군의 “규율과 질서”를 들고 나오면서 이는 “출병으로부터 원수까지”해당됨을 강조하였다.<sup>22)</sup> 새로운 책임자인 Panov를 맞은 적성지도 “군내의 간부들은 당 정치를 빈틈없이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sup>23)</sup>

소련적군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1959/60년대 창립된 전략로켓 부대는 또한 새로운 사령관으로 대체되었는데, Tolubko 원수가 물러나고 Maximov 원수가 임명되었다. 소련지상군 사령관은 이제 Ivanovsky 원수가 되었는데, 그의 전임자인 Petrov 원수는 오히려 승진하여 세명의 제일 국방차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위와 같은 군의 인사이드는 Gorbachev에게 위험부담을 늘리기 보다, 정치지도부가 군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인상을 갖게 한다.<sup>24)</sup> 그러나 실질적인 군에 대한 통제권은 군사위원회 의장으로서 Gorbachev가 갖는 권한이다. 1967년에 2차대전시의 Stalin의 제도를 부활시킨 제도로서 군사위원회 의장은 평화시에는 소련군과 군사산업을 총괄할뿐 아니라 비상시에는 국가운영에 비제한적인 대권을 행사하고, 민간 및 군사분야에서도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sup>25)</sup>

22) *Pravda*, 14, Jul. 1985.

23) *Krasnaya Zvezda*, 1985년 7월 16일자 사설

24) FAZ. 29, Okt. 1985 참조.

25) Peter Gosztony, *Die Rote Armee, Geschichte u. Aufbau der sowjetischen Streitkräfte seit 1917*. (1980, Wien u. a.), S. 409~410

## V. 改革政策속의 對外政策

소련을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부흥을 위한 일련의 개혁정책과 연결된 국내정치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외적 환경의 호의적인 태도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소련 공산당 당령에서 볼 수 있듯이 Brezhnev의 소련영향권내의 “사회주의 사회(socialistic society)”의 통합을 전고히하는 대륙전략과 세계 패권장악을 목적인 세계전략이란 그중 전략에서 다분히 Gorbachev의 대륙 전략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변모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새로운 détente의 재개를 유도하면서 핵군축회담에서 일정한 부문에 양보의 용의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SDI에 대한 소련의 우려는 Gorbachev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적인 저항을 무마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하며 특히 SDI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개혁이 미·소간에 기술격차에 더욱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기에 본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Gorbachev 자신 스스로 대내정책과 대외정책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1984년 12월의 영국의회에서의 연설중에, 그는 국내적인 이유로 인하여 유연한 대외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소련은 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대한 창조적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동·서간의 평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sup>26)</sup> 지난 87년 2월 16일의 전국에 중계된 TV 연설에서 Gorbachev는 “우리의 국제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 국내정책에 의해서, 즉 우리나라를 개혁하는데 건설적인 노력을 집중하려는 우리의 이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sup>27)</sup>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2년간의 집권이후, 긴박한 국내적인 이해와 소련의 대외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집

26) *Pravda*, 19, Dec. 1985.

27) IHT, Feb. 17, 1987에서 인용

권을 조금 앞두었던 Gorbachev의 런던연설보다 훨씬 강하게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소련의 대외정책이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7년 당대회에서는 Gorbachev는 그의 국내정치 우선의 대외 유희정책에 저항하는 일련의 “의부적인 힘”을 경고하고 있는데 이는 국외에서보다 국내에서의 전통적인 정치국내의 노선으로 특히 Gromyko에 의해서 대변되었던 군지도부에 크게 의존하는 대외정책의 노선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이는 결국 크레블린 지도부내에 “포위된 요새”의 구상을 고집하면서, 미국과의 군비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통해서 자체내의 힘들을 광범위하게 동원하고자 하는 노선이 일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선은 경제개혁정책면에서는 Tikhonov에 의해 대변되었던 강경노선과도 일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한편, 대외 유희정책의 노선은 연속으로 내놓은 일련의 군축제안들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제의, 국내의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의 석방, 대중공 화해정책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대내정책 우선 경향은 많은 정치지도부<sup>28)</sup>에 속하는 당 및 정부 관리들이 경제분야를 담당하는데에서도 볼 수 있다. 소련 최고위의 경제 담당자라 일컫는 Ryzhkov, 경제분야(교통, 운송)중 요역할을 담당하며, 제일 부수상이기도한 Aliyev와, 군비경제를 책임지며, 당서기인 Zaikov는 모두 정치국 정위원이며, 당서기이면서 에너지경제 및 중공업분야를 맡고 있는 Dolgikh, “Gosplan”의 위원장이면서 제일 부수상인 Talyzin은 정치국 후보위원이다. Gorbachev의 측근이라 불리는 Nikonov와 Murakhovsky는 각각 당서기로서 농업경제와 1985년 가을에 새로 설립된 농업 및 연관산업의 총관부서인 “Gosaprogrom”의 위원장으로서 제일 부수상에 임명되었다. 이러한 직책분배는 Brezhnev 시기보다 훨씬 경제분야를 담당하는 정치지도부의 비중이 크다.

28) 정치지도부란 대개 정치국 정위원, 후보위원, 수상, 4명의 제일부수상을 가 르켜 좁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Gorbachev의 개혁정책 실현을 위한 그의 대외적인 노력은 첫째, 국내경제개혁 및 생산력 증강을 위한 기술진보에 필요한 대서방국과의 경제접촉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서방측의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군축협상 및 지역적인 문제(Kambodia, China, Afganistan)에서 유연한 태도로 나타나고, 둘째, 경제적인 이해충족을 다변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으로 생각되는 Gromyko 중심의 대미 중점외교전략에서 대서구 및 대일본도 중시하는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 소련의 이제까지 근본입장이었던 미·소의 이국중심주의에서 다국중심주의로의 전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Gorbachev의 대외전략 구상의 변모는 일련의 대외정책담당자들의 교체를 가져왔는데, 제일 중요한 경질은 28년동안 외교정책결정의 최고 책임자의 한사람으로 군림한 A. Gromyko의 경질이다. 그는 이 오랜 기간동안 당내에서 자기 계보의 구축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그의 수년간 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오히려 그 자신이 하나의 제도(institution)를 형성하였다. 그는 80년대에 들어서 소련의 대외정책의 결정을 사실상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으며 Ustinov와 연계된 군의 견해와 일치하는 대미 강경노선을 견지하여 왔다.

이러한 거대한 인물의 존재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구상하는 Gorbachev에게는 상당한 짐이 되었을 것이며, 명예적 국가수반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Gromyko에서 형식상의 승진의 기회를 준 것은 제일차적인 장애의 제거라고 보여진다. Gromyko의 대체인물은 Georgia 지방의 당계 일서기로서 오랜동안 지방정치에만 관여한 경찰출신의 당관료인 Shevardnadze는 사실상 Gorbachev의 대외정책의 간판인물로 간주되고 있다.

실무진에 있어서는 우선 Gromyko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완할 만한 인물로서 거의 25년 동안을 Washington 주재 소련대사를 지내온 Dobrynin(1920년생) 중앙위원회 서기국에 국제부 담당 서기로 불려와 고향의 Po-

nomarev(1905년생)를 대체하였다. 이제까지는 Gromyko가 대서방관계를 실제로 자기 수중에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Ponomarev가 서방에 존재하는 공산당과의 관계에만 관여할 수 있었으나, Dobrynin은 명실상부 대서방국관계를 장악하게 되었다. A. Dobrynin의 국제부는 또한 의무성의 미국담당 제일차관이었던 G.M. Kornienko로 보좌케 함으로써 Zagladin을 대체하였고, Gromyko시절의 의무성 우위의 분위기에서 서기국 국제부가 적어도 대등 및 우위의 지위를 갖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Shevardnadze의 의무성은 새로운 제일차관에 주인도, 주불대사를 역임하고 벨그라드 CSCE 후속회의 대표였던 Ju. M. Vorontsov(1930년생)와 오랜동안 유럽문제를 다루어온 직업외교관인 A.G. Kovalev(1924년생)차관을 제일차관으로 승진발령했고, 특히 Vorontsov는 Karpov를 대체하여 제네바 군축협상대표직을 맡도록 했다.

당 대변인의 역할을 하며 Brezhnev의 해외여행에 항상 동반했던 L.M. Zamyatin(1922년생)은 1978년 신설 되었던 국제정보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Information)가 해체되면서 영국대사로 이임되었으며 국제정보부의 관할업무는 국제부와 선전부로 분할 이관된 것 같다. A. Jakovlev는 1985년 7월에 당 중앙위원회의 선전부 부장겸 서기로 임명된 Gorbachev 측근으로, 소련과학원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바 있고, Gorbachev는 그를 지난 1월에 정치국내의 Shcherbitsky의 견재와는 대조적으로 Jakovlev의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의 승진을 관철하였다. 그는 특히 Gorbachev의 대외전략구상인 Polycentrism을 시사한 최초의 당 관리이기도 하다.

또한 외교면에 새로 부각된 인물로서는 주미소련대사로 단지 몇주동안 UN주재대사를 역임한 J.V. Dubinin과 주독대사로 전보된 전 제네바 군축회담중 중거리미사일 감축회담의 대표였던 J.A. Kvitsinsky이다. 이에 덧붙여 V. Lomeyko와 교체된 G.I. Gerassimov의 의무성 대변인, 그리고 Gorbachev의 대외정책자문인 Alexandrov-Agentov를 대체한 국제부 부

부장이었던 A. Chernyayev 를 들 수 있다.

소련의 대외정책 수행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대동구공산국가들과의 관계이다. 동구권에 대한 Gorbachev의 개혁정책의 영향은 주독대사 Kvitsinsky의 말처럼, “소련에서 생긴 일들은 어쩔 수 없이 전 진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동구국가들의 당서기장들은 Gorbachev의 개혁정책에 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첫째 이유로서는, 동구 당지도자들이 모두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적군의 도움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며, 정권유지에는 최종적으로 소련의 도움을 항상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Gorbachev의 개혁이 가져올 당과 국가 지도자의 선거에 의한 선출은 그들의 종말을 의미한다. 둘째 이유로서는, 소련이 그들의 민족적인 전통과 사회적 경제적인 국가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일방적으로 유용하다고 여기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강요한다는 데에 있다.

Romania의 차우체스쿠는 Gorbachev의 개혁구상은 “과학적 사회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하고 “사적 소유는 단지 자본주의 생성을 조장한다”라고 그의 스탈린적인 지배 전형을 옹호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경우에는 1968년에 있었던 소련의 전차로만이 좌절시킬 수 있었던 프라그의 봄에 대한 악몽을 되살아 나게 한다. 이의 휴유증은 오랜동안 정치, 경제면에서 변혁에 대한 과감한 행동을 방해하여 왔다. 68년 이후 계속집권 해온 74세의 Gustav Husak은 “괜히 시작해서 잘못하는 것보다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낫다”라는 주의로 나오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상임위원회 위원인, Vasil Bilak은 모스크바의 계획이 가치있는 자극이기는 하나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다시 Dubček의 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우리 주위에는 이 새로운 정책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들은 그들이 문제삼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그들은 소련의 개혁에 편승하면서 그들의 인민적대적이고 반 사회주의적인 활동을 은폐하려 한다.”

주석독 체코슬로바키아대사인 Dusan Spacil도 “각 국가는 자기 자신의 조건들이 있다. 프라그는 모스크바의 개혁을 지지하나 복사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동독도 또한 모스크바의 전환에 대해서 형식적인 찬의 이상은 보낼수가 없다. Honecker가 얘기했듯이 “동독 국민경제는 과히 모범적이다. 동독에는 시민의 개인적인 정치권한이 보장되고 다수 입후보에 의한 선거는 오래전부터 행해져오고 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어떤것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다.”라고 특히 경제면에서의 동구권 국가중에 제일 선두를 달리는 주자로서의 현 실존체제를 옹호하고 있다.

동구권 국가중에 유일하게 전적인 동의를 하는 국가는 야루젤스키의 폴란드이다. 그의 찬동은 소련의 경제활성화가 그들에게 가져올 경제적인 이해에 있다. 즉 “이웃에 경제정책들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면 이 경향이 가속되고, 쉬워지기 때문이다.”라고 폴란드 정부대변인은 밝히고 있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기운이 헝가리에서는 어떤 커다란 관심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게 한편으로는 만족을 느끼며 20년전에 헝가리가 시작한 개혁정책의 실현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 당지도자들의 우려는 Gorbachev에 의해서 일깨워진 보다 많은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기대와 당의 행동반경을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미 헝가리에서는 이웃나라들에게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 및 사회발전이 가져온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다는 데 다른 동구 국가들과의 차이가 있다.

Gorbachev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소련내에서의 개혁정책의 일정한 정도의 성공조짐을 확신하기 이전에 동구 동맹국들에게 이를 강요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동맹국들에게 개혁이 일으킬 물의는 결코 소련내의 개혁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구 수뇌들이 그들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의 압력을 받기에는 아직시간이 이르다고 본다.

## VI. 아세아·태평양 地域에 대한 새로운 挑戰

Gorbachev의 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은 범세계적으로는 이지역에서 확고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한 제동이며, 미국을 주축으로 한 亞·太지역에서의 상황변화가 국내개혁정책 추진에 압력의 요소로서 등장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데에 있고, 지역적으로는 소련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한 이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과 이에 대한 압력 또는 장애가 되고 있는 이지역 국가와의 관계 재조성 및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이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동맹관계의 강화로서 거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인 측면에서 본 소련의 亞·太정책은 그들의 유라시아적인 지정학적 특수성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전개될 것이 전망된다.

첫째, 亞·太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는 경제개혁 및 발전에 우선한 대내정책의 계속적인 실현을 위해서 이에 대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이 정책의 추진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전개될 것이며, 둘째, 소련의 대외정책이 미·소 중심적 구상에서 다국주의적 구상으로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새로운 기술 도입의 창구역할을 해온 서부유럽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의 대 서부유럽 우선의 대외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련의 대 亞·太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나, 지난 7월 브라디보스톡 선언은 지난 20년 동안 계속 축소되어 온 아세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소련의 영향력 회복을 위한 Gorbachev의 정치적 의지의 표현이다.

소련의 아세아 영토가 아세아 전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전체인구의 10분의 1이 아세아종족인 소련이 이 지역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집권 엘리트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이었다. 소련은 지정학적인 소여가 가져오는 유리한 점을 이용하여,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국의 지위를 이곳에서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Gorbachev는 “소련은 또한 아세아 태평양 국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Brezhnev의 집단 안전보장 구상도 포함한 그의 구상을 아세아·태평양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제까지 소련은 꾸준히 군사력을 증대하여 오고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외교수완은 결여하고 있었다. 아세아 이웃들의 분쟁들, 즉 중공과의 3대장애(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점령원조,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주둔과 중공국경에서의 막중한 소련군부대배치)와 ASEAN 국가들의 요구(캄보디아와 아프가니스탄의 분쟁해결에 대한 요구)는 소련이 지난 10년동안 Brezhnev 하에서 이룩한 군사적인 강세의 표현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국가이해 추구에 있어서는 서물렀다고 본다.

이제 Gorbachev는 군사적인 힘의 과시를 억제하고, 그들의 이해를 존중하기 위해 적은 비용을 들이고 새로운 세력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Brezhnev가 강대국 중심으로 범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루려하는 반면에, Gorbachev는 모든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제안들을 하고 있다. 즉, “세계경제 안보회의(Congress on World Economic Security)”, “전 아세아회의(All-Asia Forum)”, 핵에너지 협력회의(Conference for Nuclear Energy Corporation)” 등이 그것이다. Gorbachev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에게 “웰싱키 정신”을 아세아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태평양 군축 회의를 히로시마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또한 해군 감축회의, 해상핵무기 제한, 일정한 태평양지역에서 잠수함의 활동을 제한하는 국제협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까지 미국과의 경쟁에서 서투른 외교수단으로 종종 미국에게 유리한 입장을 부여하였으나, 이러한 관행은 적어도 몇 아세아 국가에서는 깨어져가고 있다. 시기적으로 봐서도 모스크바는 그의 주요 경쟁국

인 미국과 우호관계를 갖는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기회를 갖게 되는 데, 이는 이 국가들이 미국에 연루된 경제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이나 서부유럽국가들에 의해 팽배해진 보호무역정책에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데에 있다.

Gorbachev는 블라디보스톡 선언에서, “우리는 미국이 이지역에서 중요하고 정당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해를 가진 위대한 태평양 세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70년대 중반이후 미국은 이지역에 주요 군사력 증강을 기도하여 태평양을 “군사적인 대결의 장으로” 바꾸어버렸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하여 군사적인 힘을 구축하려는 종래의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그들이 Gorbachev에 와서 달리 생각하는 것은 과거와 달리 너무 성급하게 군사적 수단에 호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sup>29)</sup>

미국무성 동아시아 북태평양 담당차관보인 Gaston J. Sigur에 따르면, Gorbachev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을 어떤 중요한 새로운 본체를 반영하기 보다는 소련 대외정책에 있어 오히려 형식적인 뉴앙스만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더욱이 이지역에서 차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하는 소련의 결심의 표현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sup>30)</sup>

소련이 이러한 경쟁상대자의 의심을 불식시킬 수 없는한 이지역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이익을 얻기에는 비판적이다. Gorbachev는 오히려 이지역에서 구태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국제긴장을 완화하므로서 소련련 대화에 직접 간접으로 요구되는 그들의 이해를 관철하려 하고 있다. 소련의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겠다.

29) IHT, July 29, 1986.

30) Gaston J. Sigur, Jr.,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Emerging Pacific”, in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Vol. 86/Nr. 2117, Dec. 1936.

첫째, 태평양 경제협력회의(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가 민간차원에서이지만 활발히 진행되면서<sup>31)</sup> 亞·太국가들간에 경제적, 정치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증대되었고, 소련은 이것이 군사협력체제로 발달하여 제2의 NATO가 소련의 동쪽옆구리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sup>32)</sup> 또한 군사블록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EC 같은 형태의 소련을 제외한 태평양 연안국가들만의 경제협력체제는 소련의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는데 큰 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NATO형 군사협력체제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으로서 소련을 대상으로한 美·日과 韓·美·日 간의 동맹 및 군사협력체제의 강화와 증공에 대한 군사장비현대화를 위한 미국의 지원은 소련이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데 고심케 하고 있다.

셋째, 시베리아 및 소련극동지역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일본 및 亞·太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을 증대시켜야 할 국내적 필연성이 대두되고 있다.

네째, 이러한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왕에 군축에 관한 양해로서 부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정치·군사면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서 亞·太지역에 확산시킬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亞·太지역에서의 소련의 이해의 실현과 그들의 이지역에 대한 대외정책의 조건들이 실제로 이지역 국가에게 각각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언급해 보자.

Gorbachev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비판적인 증공지도자들의 주의를 끌만한 몇 가지 양보의 가능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거기에서 증공이 양국간의 관계정상화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주요문제들에 대하여 협

31) 1986년 4월 26일자 Tass 통신은 정치경제문제를 협의할 태평양 공동체를 위한 메간 행정부의 제안을 맹렬히 공격하였다. IHT, April 28, 1986.

32) FEER, 14, Aug. 1986.

상의 용의를 시사했다. 즉 중·소간 아프르강을 따른 국경문제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소련에서 주장하는 중공언덕의 국경획정 주장을 고사하고, 최저 수습에 따라 결정하자는 중공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언했고, 중·소 국경지역 주둔 소련군의 감축에 대한 제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으며, 몽고와 아프가니스탄으로 부터의 소련군 감축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Gorbachev가 언급하지 않은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점령지원은 양국간의 관계정상화에 첨예한 이해갈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 없이는 양국 수뇌회담의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1987년 2월부터 9년만에 재개된 국경회담이나 1982년 관계정상화 노력이후 강화하기 시작한 무역관계는 소련의 대 중공관계 개선의 정도를 제척할 수 있는 척도이다. 그러나 1969년부터 1978년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던 국경회담의 전례로 봐서 이 회담을 실질적인 관계개선으로 유도하기에는 미약하며, 미국과의 일년간 무역량(\$ 8 billions)에 비하여 4분의 1뿐이 되지 않는 양의 무역관계는 미국을 중공으로부터 소련케 하고자하는 소련의 대 중공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미약하다.

지난해 10월 북경을 방문했던 소련 제일 부수상인 N.V. Talyzin에 의해서 소련방문 초청장이 조자양 수상에게 전달되었고, 최근에는 오는 6월 동구 5개국 방문시에 소련에 들려줄 것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초청장이 갱신 되었으나, 조자양은 중·소간의 미해결 현안문제들이 산적되어 있는 상태로서는 방문은 시기상조라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오히려 소련방문 대신에 귀국길에 파키스탄과 태국을 방문할 의사를 비추고 있다.<sup>33)</sup> 중공은 이를 계기로 소련에 대해서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에 대한 모종의 압력을 행사하기를 재촉하고 있다.

소련은 대 일본관계에서 지난 1986년 1월 소련외상 Shevardnadze가 일본방문을 계기로 아프가니스탄 및 폴란드 사태로 악화되었던 비정치적

33) IHT, Mar. 2, 1987

분야에서의 협조관계를 회복하였다. 즉 일본은 소련의 상 방문 몇 주전에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진주로 실시됐던 장기차관 공여금지를 해제했고, 폴랜드의 전시법 선포로 실제로 1982년부터 유효되었던 일본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목재 제공협정이 양국간 체결되어, 소련이 일본에게 10년간 5억불에 해당하는 목재를 제공하고, 일본은 소련의 목재 가공산업에 소요되는 기계류를 제공키로 협약하였다. 또한 외상 방문시 소련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일본의 참여가 적극 권장되었으며, 원유개발, 천연가스, 항구건설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소 호응은 일본이 전후 고수해온 북방영토(Kuril islands)문제에 있어서 소련의 양해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영토문제에 대한 토론은 거부하고, 단지 엄격한 상호 주의적 입장에서 전쟁피생자 무덤을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있다. Gorbachev는 오히려 이제까지 줄곧 거부해오던 미·일간의 안보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인"상태로 인정함으로써 영토문제를 무마해 보려고 한다. 이러한 Gorbachev의 미·일 안보관계의 인정은 중공의 대미 군사방위협조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표명과 그 계를 같이한다.

소련의 亞·太지역을 위한 전력은 극동군사 작전 지역에 53개사단(탱크사단 7, 기계화사단 45 및 공수사단 1), 폭격기 200대를 포함한 전술용 비행기 약 1,730대, 아세아의 전지역을 목표로 할 수 있는 중거리 핵미사일 SS-20가 171기 그리고 2대의 항공모함과 전함 약 200척, 전투기 약 500대, 115대의 잠수함을 포용하고 있는 소련의 4개 함대중 제일 막강한 태평양 함대로 되어 있다.<sup>34)</sup>

34) FAZ, 15, Jan. 1986.

35) U.S. Department of Defense, *Soviet Military Power 2986*, 5th ed., Washington D.C. March 1986, p. 9.

육군에 있어서 T-72형 탱크 개발 생산배치와 전투용 헬리콥터연대의 배치 등으로, 공군에서는 Flogger(MIG-23, MIG-27)와 Fencer(Su-24)의 계속적인 개발로 현대화하고 있으며, 40대의 장거리 Backfire가 구형의 Badger와 함께 극동에 배치되었고, 해군의 경우 1979년부터 Kiev급(배수 톤수 3만 7천톤, 길이 270m), Minsk가 태평양함대에 배치되고, 115대의 잠수함 중에는 적어도 반수이상은 공격용 핵잠함으로 핵 크루즈 미사일의 적재가 가능하다. 여기에 또한 장거리 폭격기 Backfire B 30대가 극동 해군에 속한다.<sup>36)</sup>

이러한 숫자적인 측면에서의 전력증대와 몇 가지 분야에서의 질적인 전투력향상에도 불구하고 亞·太지역에서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누리는 전력의 질과 전략상의 우위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지 예외가 있다면, 중거리 핵미사일인 SS-20의 극동배치가 가져오는 핵전략면에서의 소련의 유리한 지위를 보겠는데, 이에 대한 그들의 착상은 그들이 이미 70년대 중반, SS-20를 개발할 당시, 이를 우선 주로 아세아지역에 배치할 의도를 가졌고,<sup>37)</sup> 실제로 이의 배치가 아세아지역에서 시작되었었다.

Baikal 호 동쪽 Onon 계곡과 Shilka 계곡에 배치된 171기(전체 보유수 441기)의 3탄두 다목표 공격가능한 SS-20는 그의 비행거리 3,000마일(4827km)로 인하여 동남쪽으로 미국의 해군기지인 Subic 만과 공군기지인 Clark 기지에 미치며 남쪽으로는 인도양의 미군기지인 Diego Garcia에 까지 공격가능하다.

이러한 소련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세력으로 미국의 핵무기 전략사항은 구체적으로 발표된 바 없으므로 상호비교가 곤란하나 단거리 핵미사일의 극동 미주둔지역에 배치했을 가능성은 크며, 특히 태평양 제 7함대에 속해있는 핵가동 9대의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적재했을 가능성도 또한 높

36) Die sowjetisch Rüstung 1983, Bernard & Graefe Verlag, Koblenz 1983, S. 49~52.

37) "Arm Control in Northeast Asia," in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87, Vol. 10, Nr. 1 p.70.

다하겠다.

재래식 무기면에서 볼 때 우선 소련의 태평양 함대에 대응하는 미국의 해군력으로서 제 7함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항공모함 1, 전함 75, 전투기 400, 핵잠수함 9, 6 만의 해병과 해군으로 구성되어 숫자적으로 소련에 크게 뒤지나, 전투기, 전함 및 잠수함 성능면에서 소련에 크게 앞지르고 있다. 예를 들어 115 개의 소련 잠수함 중에 수선이 필요없이 항상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숫자는 25 개함 내지 30 개함에 그치며, 최신 컴퓨터와 최신장비로 장치된 7 함대소속의 초계정 “Blue Ridge”를 감당한 소련의 정찰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제 7 함대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일본, 뉴질랜드, 호주에 걸치는 5200 만평방마일에 달하는 대양을 24 시간 끊임없이 순항하는 반면에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베트남의 Cam Ranh 만중에 자주 몇 주동안씩이나 정박하고 있다. 미해군은 태평양을 동·서로 11 개의 시간구역으로 구분하여 언제 어디서나 96 시간 이내에 육해전 병력을 임의의 작전지역의 해안에 수송할 수 있고, 2 만 정도의 해병을 유사시에 더 동원할 수 있으며, 7 함대 이외에 2 개의 함대를 더 작전에 동원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Yokosuka 와 Sasebo 에 필리핀의 Subic 만과 Guam 그리고 인도양의 Diego Garcia 에 소련으로서는 대등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우수하게 설비된 해군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방성 관계자들에 의해서 자주 점증하는 소련의 위협으로 언급되는 Cam Ranh 만을 보면, 우선 79 년이후 시작된 소련의 사용 댓가가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소련 Cam Ranh 만 기지 사용권이 어느 정도의 계약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소련기지를 세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전의 미해군 기지였기 때문에 미국측에서 잘 알다시피 Cam Ranh 기지에는 군함이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는 이동 가능한 부표가 없으며, 몇 개의 활주로와 격납고가 있을 뿐이며, 단지 소련은 인수 이후 선창을 2 개에서 4 개로 늘렸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해군기지인 Subic 만과 크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은 건조도크나 육지의 부대시설인데, Cam Ranh 만의 경우 이것들이 없으며 Subic 만의 경우 항공모함 자체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sup>38)</sup> 특히 이러한 전력적인 설비상의 열세는 Gorbachev가 워싱턴이 필리핀에서 군사기지를 포기한다면 모스크바도 Cam Ranh 만에서 물러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에서 잘 엿볼 수 있다.<sup>39)</sup>

소련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균형에의 도달을 어렵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본의 군비증강이다. 일본에서의 국방비 부담을 경감 시키고자하는 레이건과 경제적인 강대국의 지위를 정치·군사면에도 나타내고자 하는 나카소네의 이해는 지난 10년동안 미루어 오던 GNP의 1%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지 않도록 한 결정을 포기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장애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최근에 와서 미국의 극동전략에 일본의 군사전략적인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에 실행한 “Keen Edge” 기동연습은 가상적(소련)을 목표로한 작전이었고, 여기에는 처음으로 미·일의 육·해·공군이 참여하였고 일본, 하와이, 한국과 필리핀의 주둔부대가 참여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이러한 작전은 집단안보체제의 참여를 금지한 전후 일본헌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미묘한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군비에 대한 자각은 국내적 요인도 있으나, 소련으로부터 오는 군사적 압박감도 크다고 보겠다. 소련은 지난 몇년동안, 미·일의 국방관계자에 따르면, 북방 4개도서에 10,000명의 지상군과 40대의 MIG-23 전투기를 배치했으며, 특히 에토로후섬에 대부분의 군사설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소련의 대 동북아 진출의 한면목으로서는 지난 2~3년 이후 계속 호전되어 왔던 북한·소련관계가 주목된다. 70년대에 계속 증공 우호적인 입

38) FAZ, 29, Feb. 1985.

39) FEER 14, Aug. 1986.

장으로 기울어져 있던 북한이, 78년 이후 중공이 일본 및 미국과 우호조약을 체결하고 문호를 개방하여 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 이에 충분히 동반하지 못한 것은 그의 국내 및 국외의 여건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1982년 이후 등소평, 호요방, 조자양 등 중공의 고위층이 북한을 방문하고 두 차례나 김일성을 초청하면서 중공의 국내의 정책과 북한 정책간의 공통점을 모색하도록 노력해 왔으나, 중공의 계속되는 개혁정책의 추진과 대 서방측과의 접촉의 증대로 양국관계는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한국과의 지리적인 접근성에서 오는 중공인의 망명사건등으로 인하여, 비정치적인 접촉이 확대되고 체육 및 문화적인 행사에서 중공·한국의 접촉이 잦아 지면서 양국관계의 발전에 촉진을 꾀하고 있었다. 더욱이 북한이 82년부터 침체되고 있는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편을 문호개방 및 개혁보다 재래의 기술 및 산업재 원조형태로 추진하려 하면서 다시 소련과의 접촉은 강화하게 된다.

소련측에서 볼 때 김일성의 접근은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973년 이후 중단된 무기공급을 재개하면서 소련은 북한이 위치한 전략적인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1985년 4월 북한의상 김영남의 모스크바 방문시 MIG-23기의 공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으며, 기지제공은 결코 아니고, 원산 및 남포항의 입항권이 허용되고, 캄란만과 브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정찰왕복 비행시 북한상공의 비행이 용인되었다. 중공과는 달리 김정일의 권력계승문제에 대하여 공개적인 입장의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소련은 적어도 권력의 변화 이후의 집권세력과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을 한도내에서 김정일에 대한 비공식적인 예우에 그치고 있다.

소련이 시리아와 리비아에 벌써 70년대말에 제공했으나, 오랜동안 북한에 거부해왔던 MIG-23 전투기의 제공을 허용한 배경은 첫째, 일본의 미 Misawa 공군기지와 한국의 미 군산 공군기지에 F-16 전투중대의 배치와 둘째, 한국공군에 1986년 4월부터 1989년초까지 36대의 F-16 C/D를

미국기지에 배치하기로 한<sup>40)</sup> 한·미간의 합의라고 생각된다. F-16은 성능면으로 볼 때 MIG-23이나 MIG-25보다 한단계 월등한 MIG-29와 견줄만하며, 소련은 이러한 고성능 전투기의 북한공급에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소련으로 부터 MIG-23기 30~40대의 북한공급이 한반도에서 공군전력을 북한의 우세로 가져가기에는 미약하고, 종래 소련을 우려케했던 한반도 분쟁이 그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미리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소련의 대 북한군사지원에 한도가 있다고 본다.

물론 Gorbachev의 측면에서 평양정권을 그들에 의존하는 위성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북한에게서 능률적이고, 충성하며 군사적인 안정을 지닌 동독과 같은 역할을, 즉 한국에서 미군사력을 견제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도 과도한 대소전군은 삼가할 것이다. 중공을 너무 밀어내는 것도 어렵겠지만, 민족적인 독립을 크게 외치는 그에게 이는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일 것이다.

중·소간의 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문제이며, 그 성격의 미묘함으로 인하여 Gorbachev의 브라디보스톡 연설에도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던 베트남의 캄보디아 주둔은 지난해 12월 베트남 공산당대회에 참가한 소련 공산당내의 제 2인자인 Yegor Ligachev의 말에서 소련의 기본자세를 간파할 수 있다.

즉 모스크바는 중공과의 관계가 “제 3국가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원칙위에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sup>41)</sup>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소련의상 Shevardnadze가 지난 3월초 6일동안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를 순방하는 과정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계속 이들 동남아국가 및 태평양 주변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한 용의를 강조하지만, 중공 및 기타 비공산 亞·太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월남과의 긴밀한 관계를 희생할 용의가 없음을

40) FEER 26, June 1986.

41) IHT, Mar. 14~15, 1987.

분명히 했다.

E. A. Shevardnadze는 캄보디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노이 정권에 제공되는 원조를 미끼로 한다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sup>42)</sup> 소련의 상의 3개국 방문 이후 곧 베트남의 공영방송은 베트남의 중·소 화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데, 중·소 화해에 대한 오해는 베트남정권이 이미 지난해 12월의 당대회때, 소련의 아세아 정책과 중공과의 관계정상화 지지성명을 내면서 해소되었다고 보는 관측통들이 많다.<sup>43)</sup>

베트남은 지난 1978년 중공의 지지를 받고 있던 Khmer Rouge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현재 15만정도의 주둔군이 캄보디아를 점령하고 있다. 모스크바는 1979년 이후 베트남에게 매년 20억 불 내지 30억불 정도의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군사원조는 캄보디아의 점령군 유지와 대 중공 국경지역 강화를 위하여 지출되고 있다. 어쨌든 모스크바는 베트남 군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음에 매우 소중히 여기고 그의 월남관계를 악화시키려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주둔문제는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함께 소련의 대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 방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경제협력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하여 종전과는 다른 좀더 효율적인 채널을 찾아내려 하고 있다. 소련의 견해에 따르면 亞·태지역에서 단지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에 귀추된 안보 문제들을 亞·태지역내의 타국가들간의(소련을 포함한) 경제적 및 기술적 협력으로 극복가능하다는 것이다.<sup>44)</sup>

亞·태국가들 중 몇 나라는 미국의 권장하에 구상되고 있는 태평양 공동체(Pacific Community)에 대하여 경제의 빛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42) IHT, Mar. 9, 1987.

43) IHT, Mar. 12, 1987.

44) FAZ, 24, Apr. 1986.

강대국의 패권 대상이 될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자주 Tass에서 비난하고 있는 이 공동체가 장래에 긴밀한 지역그룹으로 그리고 또 다른 군사적인 블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펼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소련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남아세아 국가들에 대한 접근은 서방측의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강화되고 무역거래상대자를 어디 다른 곳에서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동남아 연합국가들(ASEAN)과 소련과의 무역량이 1974년의 3억 5천 5백만불에서 1984년에 9억 9천만불로 상승했으나, 1985년 미국과의 무역량을 보면 2,350억불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sup>45)</sup> 이런 의미에서 이지역에서 소련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고 하겠다.

소련을 겨냥한 중공, 미국, 서구 NATO 동맹국들과의 연합전선의 형성이 가까운 시일내에 이룩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공과 미국의 접근으로 항상 소련을 괴롭힌 양쪽 옆구리에서의 이중전선의 형성이 몽상만은 아닌 80년대에 소련의 아세아·태평양 정책은 큰 기로에 놓여있다고 본다. 소련은 항상 NATO와의 충돌이 극동전선으로 확대되어 이중전선을 형성하지 않나 항상 고심해 왔다. 이에 연관한 가장 큰 걱정거리는 우선 극동에서의 중공, 일본, 미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86년대 아세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소련의 입장이 20년전 중공이 가까운 동맹국이었으며, 일본이 허약하고 겨리는 미국의 하급동맹자이며, 한국이 전쟁과 분단에 허덕이고 있던 때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호전될 가망은 크지 않은 것 같다.<sup>46)</sup>

이러한 의미에서도 Gorbachev 대 아세아·태평양 정책은 큰 딜레마에 처해있다. 그는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새로 문호를 개방하여, 동쪽으로

45) IHT, 28, Apr. 1986.

46) Herbert Y. Schandler, Arms Control in Northeast Asia, in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1987 Vol. 10, Nr. 1, p.72 참조

부터의 압력에서 해방되고, 자본과 기술의 새로운 원천을 얻으며, 그러므로 국내에서 개혁의 분위기를 계속 이끌기를 원하나, 亞·太지역에서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양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아직까지는 국내 정통파 당지도층으로부터 약세의 노출로 비난을 받기 때문에 과히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 Ⅶ. 結 語

소련의 개혁정책에 있어서는 그들의 민주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와 이러한 개혁이 70년동안 기반을 굳혀온 소련체제에 도전을 동반한다는데 Gorbachev의 딜레마가 있다. 이와 더불어 Gorbachev가 일으키고 있는 개혁이 가져올 기대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것이냐에 또한 위험이 따른다. 그가 너무 과도하게 나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무리와 기대에 대한 실망이 큰 무리가 연계될 때, 이는 그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등장할 것이며 소련에서 이미 1964년 Khrushchev가 겪었던 길을 재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겠다.

물론 Khrushchev의 개혁정책은 소련 상부 관료층의 단합된 저항전선을 형성케 했고, 사회 하부층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무관심을 적극적인 참여로 유도하지 못했다는데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면, Gorbachev는 Khrushchev와 달리 이러한 공동 저항 노선의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의 정책과 연결되는 소련사회 각 계층의 사회적인 이해를 적극 일깨우고, 구체제와 신체제 사이에 존재할 과도기를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며 더 나아가서 이미 밟고 있는 개혁의 길을 정착화 시킴으로서 되돌이킬 수 없는 과정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Gorbachev의 개혁정책은 일면 그 실현의 급박함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권력상층부에 자기 추종집단의 결성 이전에 동맹자들의 도움으로 권좌에 오른 Gorbachev는 그의 급속한 개

혁명정책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계기를 갖는 반면에, 그 자신이 시사했듯이 개혁정책의 성패여부가 그의 개인적인 장래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는 면에서 또한 위험 부담도 크다.

소련 사람이면 누구나 지난 20년에 걸친 Brezhnev의 집권이 극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적 위기로 이끈 동면기 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의 필연성은 Gorbachev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자이다. 그러나 추상적이었던 개혁의 필연성이 지난 2년동안 Gorbachev를 통하여 기존지배권력층(Nomenklatura)의 각자에게 개인적인 책임과 공적인 통제로 구체화 되면서 개혁에 대한 유보의 분위기가 증대하고 있다.

Gorbachev가 갖는 개혁의 필연성은 지난 20년동안 소련 사람들은 크게 변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지시나 전면통제로서 그들을 다루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인한다. 통계적으로 보면 Khrushchev 시대에 도시와 농촌의 인구가 거의 같은 비율인 반면에 오늘날 도시의 인구는 2배로 커졌으며, 중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국민이 1,000명에 173명꼴이었으나, 이제는 이 숫자가 433으로 바뀌었고, 그들의 실질임금은 3배로 뛰었다.<sup>47)</sup> 스탈린 시대의 경험이 요즈음의 대부분의 소련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경험이기 보다, 역사의 하나의 장으로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필연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책의 성공여부는 역사적으로 보아 왔듯이 외부적인 환경에도 크게 좌우된다. 우선 자원의 재분배면에서 군비증강과 군비축소가 가져오는 대내정책적인 효과를 차치하고라도 대서방에 대한 일관된 구상과 이에 따른 실제적인 이해의 실현이 없이는 대내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혁정책의 운명은 Gorbachev의 모스크바 대학시절 동창이며 “Prag의 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당지도자였던 Zdeněk Mlýnař의 말처럼,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뿐만아니라,

47) Zdeněk Mlýnař, Das einsame Rennen gegen die Uhr, Die politische Umgestaltung ist zur Voraussetzung für die wirtschaftliche Modernisierung geworden, in Die Zeit v. 13, März 1987에서 인용

그의 대외정책 상대자들에게도 달려있다. Gorbachev의 정책이 좌절되지 않는 것은 이 상대자들의 이해에도 합당하다. 그의 실각이 Brezhnev 시대로의 복귀를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강령론자들의 재등장으로 소련의 대내, 대외적인 군사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단성적으로 정제되고 무력화되고 있는 체제를 다시 소생시켜 보려는 무모한 시도가 되풀이 될 것이다.

Gorbachev는 내년에 개최할 당회의(당대회 중간의 임시 전당대회)를 향해 그 자신이 조심스런 개혁의 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음 당대회인 1991년을 기다림이 없이 당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갖는 중요한 계기로 삼을 것 같다. 이러한 전환기까지 Gorbachev는 그의 시장형의 경제실행과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들이 주력하고 당의 지지를 확보하며 엘리트 계층, 특히 문화, 학문적인 면의 Elite 층을 포섭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이다.